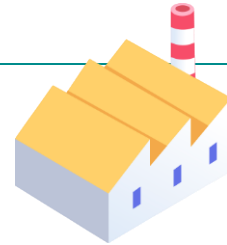


2주만 지나면 좋아질까

유틸리티 Weekly | 2026.04.03



Analyst 유재선 jaeseon.yoo@hanafn.com

RA 성무규 mukyu.sung@hanafn.com

주간 리뷰 및 관심종목

주간 리뷰

- 주간 커버리지 합산 수익률은 시장을 0.7% 하회했다. 1일 종가 기준 WTI는 101.9달러/배럴(WoW +11.4%), 미국 천연가스는 2.8달러/mmbtu(-5.7%), 아시아 LNG 현물은 19.8달러/mmbtu(-0.8%), 호주산 유연탄은 137.2달러/톤(+3.1%), 원/달러 환율은 1,513.0원(+0.5%)을 기록했다. 에너지 원자재 가격은 여전히 강세고 호르무즈 해협 개방 전까지는 높은 변동성이 불가피하다.
- 미국 대통령의 연설에 따르면 휴전을 기대하던 기존 시장의 시각과 다르게 향후 2주간 전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향후 충돌이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명목상 이뤄지는 휴전 또는 종전보다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화 여부가 중요하다. 항행 안정성은 물리적인 위협만 벗어난다고 담보되지 않는다. 선박 보험료 인상, 담보 거부, 인수 중단 등 금융 관점의 리스크가 해소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저장시설 포화로 에너지 생산설비 가동 중단이 길어지고 공급능력 회복 시점도 늦어진다. 다운스트림에서도 정유화학 제품뿐만 아니라 부산물도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산업 전반에 경계 심리가 확대될 여지가 존재한다.
- 4월 2일부로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강화되었다.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 구분에서 원유는 주의에서 경계로, 천연가스는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되었다. 천연가스는 현물 구매로 수급에 대응이 가능하지만 가격이 높아 원재료 구입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JKM은 3월 이후 20달러/mmbtu 수준으로 유가 레벨보다 높은 가격대를 유지 중이다. 유럽의 천연가스 재고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름철 수요 증가에 대응한 재고 확보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 4월 LNG 연료비단가는 120.41원/kWh으로 전월대비 4.8% 상승했다. 시차를 감안할 때 유가보다는 원/달러 환율 상승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아직 아시아 LNG 현물 가격 효과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5월부터 숫자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 4월 사우디 CP가 급등했고 국내 LPG 공급가격도 소폭 인상되었다. 국내 LPG 소매시장은 역마진 구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산업체 및 석화학 공급은 원활할 수 있다. 납사와 달리 프로판은 국내 도입 물량 대부분 미국에서 조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석화 제품 마진이 개선되면서 PDH 설비 가동률과 수익성이 제고되는 모습이며 LNG 열조용 LPG 공급도 원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 2016년 4월부터 적용되고 있었던 ESS 기본요금 할인 특례가 2026년 3월부터 종료되었다. 기존 기본요금 할인 3배가 적용되었을 당시 피크저감용 ESS 수익성이 크게 증가하여 국내 설치량이 GW 수준으로 증가했지만 이제 해당 설비들은 차익거래로 BEP 수준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 기본요금 할인 특례 일몰에 더해 산업용 요금의 최대부하-경부하 격차도 감소했기 때문이다. 지금 정책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인센티브는 비수기(3~5월, 9~10월) 주말과 공휴일 11~14시 50% 요금할인 정도다.
- 2026년 상반기 해상풍력 고정가격경쟁입찰이 시작된다. 이슈가 되었던 군 작전성 협의는 입찰 참여 희망 10개 사업 대상으로 사전에 협의를 진행했고 사전 협의가 없었던 사업이 낙찰될 경우 협의를 우선 진행할 예정이다. 공고된 물량은 1.8GW 규모로 고정식 1,400MW, 부유식 400MW로 구성된다. 입찰 상한가격은 고정식 171.2원/kWh, 부유식은 175.1원/kWh로 전년대비 3.0%, 0.8%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SMP 기준가격은 85원/kWh 수준이기 때문에 REC 가중치를 감안하면 실제 정산단가는 250원/kWh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금리 상승 등 원가 환경 악화 국면에서 상한가격 하락은 사업자의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 온실가스 배출권(KAU25) 가격은 2일 종가 기준 16,100원으로 전주대비 2.5% 상승, YTD 54.8%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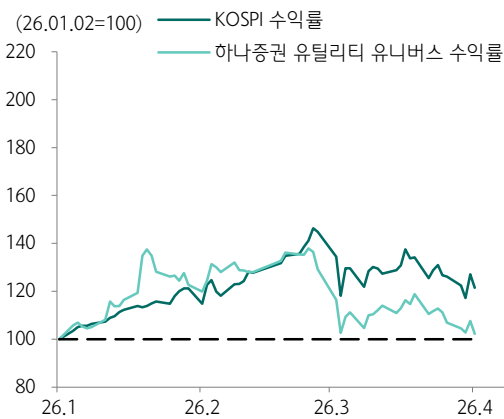
종목 코멘트

- SGC에너지(Top Pick): AI 데이터센터 법인 350억원 투자. 40MW 착공 시 후속 300MW까지 실적과 멀티플 기대치 제고 가능
- SK가스(Top Pick): 중동 LPG 가격 급등. 국내 B2C향 판가는 부담이나 산업체/석화학 공급 및 발전은 수익성 양호할 것
- 한국전력: 중동 전쟁 1달 경과. 지속된 기간만큼 후행적으로 실적에 부정적으로 작용. 4분기 영업적자 가능성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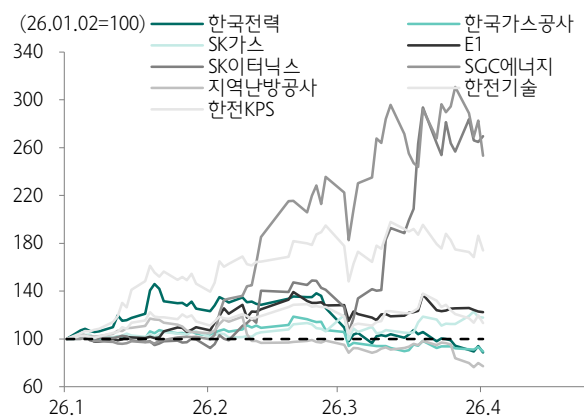
주가동향

종목	주간 절대수익률(%)					주간 수급동향(순매수대금, 억원)		
	종가(4/2)	1W	2W	3W	4W	기관	외국인	개인
코스피(Pt)	5,234.05	(4.1)	(9.2)	(6.3)	(6.3)	63,904	(129,397)	48,911
한국전력	41,250	(10.3)	(14.6)	(13.3)	(14.4)	(162)	(141)	266
한국가스공사	34,350	(4.6)	(5.2)	(4.8)	(7.4)	32	(31)	(1)
SK가스	258,000	4.7	3.6	9.8	8.4	251	(73)	(179)
E1	98,800	(2.5)	(0.9)	1.3	(0.5)	5	7	(12)
SK이티닉스	55,000	2.2	2.4	47.3	129.6	(6)	(103)	98
SGC에너지	54,200	(14.0)	3.8	(10.9)	21.7	74	(8)	(68)
지역난방공사	73,000	(19.1)	(18.6)	(17.0)	(16.4)	(58)	(37)	121
한전기술	156,200	(4.7)	(7.0)	(6.5)	6.8	47	48	(89)
한전KPS	55,400	(8.6)	(9.8)	(8.1)	1.5	(91)	36	56

섹터 / 종목별 수익률



자료: Quantwise, 하나증권



자료: Quantwise, 하나증권

주요 뉴스

1.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LPG 공급차질...국제 LPG가격 폭등 - <https://shorturl.at/eS4LM>

-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LPG 가격이 전달 대비 43% 급등하면서 5월 LPG 공급가격에 kg당 345원 인상요인이 발생
-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는 LPG는 연간 약 4,420만톤으로 전 세계 해상 LPG 운송의 약 30%를 차지
- 인도와 중국이 최대 수요처로 봉쇄 이후 아시아 시장 중심 공급 차질로 국제 가격이 전달 대비 43% 급등

2. 호르무즈 봉쇄 땀 '비료 쇼크' 현실화... 암모니아-요소 공급망까지 흔들다 - <https://shorturl.at/PZwbm>

- 호르무즈해협 리스크가 비료, 암모니아 공급망까지 흔들 수 있다는 경고. 장기화될 경우 농업 생산비, 물가 등으로 확산 가능
- 암모니아와 요소는 농업 생산을 떠받치는 핵심 비료 원료. 인도가 가장 취약한 수입국으로 지목
- 리스태드는 전 세계 암모니아 거래량을 1,090만톤(Mtpa), 요소 거래량 5,080만톤으로 추산, 영향 물량은 15% 내외로 분석

3. "에너지 안전망이 무너진다"... 호주 사이클론까지 겹친 글로벌 LNG 쇼크 - <https://shorturl.at/Ou78Q>

- 에너지 위기 때 구원투수 역할을 했던 LNG가 지정학적 충돌과 자연재해의 이중고에 갇히며 인플레이션 공포를 확산
- 셰브론이 운영하는 호주 워트스톤과 고르곤은 악천후 정전으로 생산이 중단. 파키스탄은 4월 중순이면 LNG 고갈될 위기
- 9달러 수준이었던 계약 가격은 현물 시장에서 24달러까지 치솟아 신흥국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

4. 중동 LNG공급 비상...‘LNG 재고·현물도입 관리 강화’ 수면위 - <https://shorturl.at/rXSPk>

- LNG공급망 붕괴 우려로 JKM LNG 선물 가격은 2월말 MMBtu 당 10.5 달러 안팎에서 3월 25일 20달러로 2배 가까이 상승
- 중동사태 장기화될 경우 9월 국내 LNG 도입가는 MMBtu 당 17.4~20.2 달러로 최고 수준에 달할 전망
- 소비국간 현물 경쟁 매수 방지 및 긴급 시 물량 교환 체계를 구축하고 생산국과 정부 간 협의 채널을 가동해야 한다는 의견

5. 4월 발전용 가스요금 4% 상승...전기요금 인상 압박 - <https://shorturl.at/5l2pk>

- 4월부터 민수용을 제외한 발전, 상업, 도시가스발전 천연가스 도매요금이 모두 상승. 오름 폭은 약 4%
- 발전용 천연가스는 1개월 단위로 산정. 매일 1일 천연가스 요금이 바뀌며 이에 따라 전력도매가격(SMP)에도 영향
- 금번 요금 인상은 전쟁 영향이 모두 반영됐다고 볼 수 없음. 국제 연료가격은 운송 등 SMP 반영까지 대략 2~3개월이 소요

6. 나프타 대란에 오랜만에 웃는 ‘LPG 화학’ - <https://shorturl.at/3cePc>

- 중동 전쟁으로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다른 원료인 LPG 프로판 생산 기업이 흑자를 기록
- PDH 공정은 프로판에서 수소를 제거해 대표적 기초석유화학 제품인 프로필렌을 만드는 기술
- 중국 기준 폴리프로필렌 가격은 전쟁 전 2월 말 톤당 약 145만원에서 이달 30일 약 208만원으로 한달 만에 43% 상승

7. 중동사태 직격탄 맞은 국내 LPG가격...선택지 한정 - <https://shorturl.at/uCayG>

- 주 수요층의 부담을 최소화해온 국내 LPG공급가격이 중동사태 직격탄을 맞음. 이달 CP는 톤당 평균 232.5달러를 기록
- SK가스외 E1은 모두 공급하는 LPG가격을 kg당 50원 인상한다고 통보. CP추세를 선반영하는 정무적 판단
- LPG수입사의 원가부담 흡수는 한계가 분명함. 변동세가 큰 환율도 변수 요인. 중동사태로 환율은 1530원을 기록

8. 재생에너지 늘린 나라들, 에너지쇼크에도 여유 - <https://shorturl.at/DTF6i>

-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최근 몇주간 전력가격이 오히려 하락. 파키스탄은 지붕형 태양광 보급을 크게 늘려 의연하게 대처
- 이번 전쟁과 에너지 충격은 화석연료에 호재. 가장 큰 수혜자는 석탄. 재생에너지가 승자지만 석탄도 승자라는 의견
- LNG 수입에 의존하는 아시아 국가들은 LNG 공급 부족을 메우기 위해 인도와 태국, 베트남 등이 석탄 사용을 늘리는 중

9. 상반기 해상풍력 입찰 1,800MW...상한가 인하 업계 부담 - <https://shorturl.at/UIKhj>

- 원전 약 1.8기 규모의 공고 입찰이 시작. 1,800MW 중 고정식 1,400MW, 부유식 해상풍력 400MW
- 입찰 상한가격은 고정식 kWh당 171.2원, 부유식은 175.1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3.02%, 0.83% 하락
- 기후부는 발전단가를 낮추는 것이 목표지만 업계에서는 미국과 이란 전쟁 여파로 상한가 하락이 부담이라는 반응

10. ‘인센티브 일몰과 요금제 개편’에 직격탄...벼랑 끝에 내몰린 ESS - <https://shorturl.at/aJlIj>

-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으로 경부하 시간대 전기요금은 상승하고 최대부하 요금은 내려가 기본 수익구조가 무너지는 구조
- 거기에 ESS 특례마져 일몰되면 운영 고정비로 영업적자를 맞이할 처지. 기후부가 발표한 요금 개편안도 부정적인 영향
- 대부하 시간대 공장 가동이 줄어드는 저녁으로 이동. 전기를 많이 쓰는 낮 시간에 ESS를 방전하는 요금 절감 수단마저 차단

매크로 지표 / 판매실적

매크로 지표 / 원자재 가격 추이												
	단위	4월 1일	1W	1M	3M	1Y	YTD	1W(%)	1M(%)	3M(%)	1Y(%)	YTD(%)
원/달러 환율	원	1,513.0	1,504.9	1,439.8	1,440.6	1,470.9	1,440.6	0.5	5.1	5.0	2.9	5.0
달러 인덱스	Pt	99.5	99.6	97.6	98.3	104.2	98.3	(0.1)	1.9	1.3	(4.5)	1.3
WTI	달러/배럴	101.9	91.5	67.0	57.3	71.6	57.3	11.4	52.2	78.0	42.3	78.0
Brent	달러/배럴	118.3	102.6	72.6	60.9	75.0	60.9	15.4	63.1	94.5	57.7	94.5
Dubai	달러/배럴	104.7	147.3	71.7	60.9	76.0	60.9	(28.9)	46.1	72.0	37.8	72.0
Bunker	달러/톤	696.1	658.1	428.6	341.8	457.4	341.8	5.8	62.4	103.6	52.2	103.6
천연가스(HH)	달러/MMBtu	2.8	3.0	2.9	3.7	4.0	3.7	(5.7)	(1.7)	(23.8)	(28.9)	(23.8)
아시아 LNG	달러/MMBtu	19.8	20.0	10.7	9.6	13.2	9.6	(0.8)	84.8	106.6	49.9	106.6
유연탄(호주)	달러/톤	137.2	133.1	115.8	107.5	102.7	107.5	3.1	18.5	27.6	33.7	27.6

자료: Workspace, 하나증권

판매실적 추이

한국전력

		2026년 1월	2025년 1월	YoY(%)	2025년 12월	MoM(%)	2026년 YTD	2025년 YTD	YoY(%)
판매량 (GWh)	주택용	7,513	7,336	2.4	6,753	11.3	7,513	7,336	2.4
	일반용	13,328	12,817	4.0	11,390	17.0	13,328	12,817	4.0
	산업용	23,907	23,912	(0.0)	23,302	2.6	23,907	23,912	(0.0)
	기타	4,605	4,732	(2.7)	3,906	17.9	4,605	4,732	(2.7)
	합계	49,353	48,796	1.1	45,351	8.8	49,353	48,796	1.1
판매금액 (억원)	주택용	12,188	11,729	3.9	10,481	16.3	12,188	11,729	3.9
	일반용	23,384	22,456	4.1	20,693	13.0	23,384	22,456	4.1
	산업용	45,447	44,853	1.3	44,527	2.1	45,447	44,853	1.3
	기타	5,141	5,130	0.2	4,416	16.4	5,141	5,130	0.2
	합계	86,159	84,168	2.4	80,117	7.5	86,159	84,168	2.4
판매단가 (원/kWh)	주택용	162.2	159.9	1.5	155.2	4.5	162.2	159.9	1.5
	일반용	175.4	175.2	0.1	181.7	(3.4)	175.4	175.2	0.1
	산업용	190.1	187.6	1.3	191.1	(0.5)	190.1	187.6	1.3
	기타	111.6	108.4	3.0	113.1	(1.3)	111.6	108.4	3.0
	평균	174.6	172.5	1.2	176.7	(1.2)	174.6	172.5	1.2

한국가스공사

		2026년 2월	2025년 2월	YoY(%)	2026년 1월	MoM(%)	2026년 YTD	2025년 YTD	YoY(%)
판매량(천톤)	도시가스	2,263	2,669	(15.2)	3,074	(26.4)	5,337	5,470	(2.4)
	발전	1,479	1,545	(4.3)	1,854	(20.2)	3,333	3,049	9.3
	합계	3,742	4,214	(11.2)	4,928	(24.1)	8,670	8,519	1.8

지역난방공사

		2026년 2월	2025년 2월	YoY(%)	2026년 1월	MoM(%)	2026년 YTD	2025년 YTD	YoY(%)
판매량 (천Gcal, GWh)	열	2,217	2,619	(15.3)	3,166	(30.0)	5,383	5,465	(1.5)
	냉수	11	10	10.0	12	(8.3)	23	23	0.0
	전기	1,381	1,705	(19.0)	1,810	(23.7)	3,191	3,570	(10.6)

자료: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하나증권

일별 SMP 및 수요예측 추이 (육지 기준)		3월 26일(목)	3월 27일(금)	3월 28일(토)	3월 29일(일)	3월 30일(월)	3월 31일(화)	4월 1일(수)
SMP(원/kWh)	최대	119.18	122.54	131.29	121.82	150.10	128.02	166.80
	최소	0.00	0.00	87.13	0.00	80.02	96.39	101.09
	가중평균	99.17	101.51	111.29	97.77	109.66	113.25	118.37
수요예측(MW)	최대	65,467	63,381	56,620	55,855	64,791	65,085	64,539
	최소	46,397	46,194	37,173	36,823	46,182	51,177	51,499
	가중평균	56,692	55,893	48,999	47,021	56,871	58,163	58,718

자료: 전력거래소, 하나증권

일별 전력수급실적 추이		설비용량 (GW)	공급능력 (GW)	최대전력(GW)			전일수요예측 (GW)	실제-예측 (GW)	공급예비력 (GW)	공급예비율 (%)
	금년			전년	증가율(%)					
3월 26일 20시(목)	158.3	82.8	68.8	69.2	(0.6)	65.5	3.3	14.0	20.3	
3월 27일 20시(금)	158.3	86.9	66.7	67.8	(1.7)	63.4	3.3	20.3	30.4	
3월 28일 20시(토)	158.3	81.8	59.5	62.2	(4.2)	56.6	2.9	22.3	37.5	
3월 29일 20시(일)	158.3	79.0	58.8	61.6	(4.5)	55.9	3.0	20.2	34.3	
3월 30일 19시(월)	158.3	85.4	68.4	69.2	(1.1)	64.8	3.6	17.0	24.8	
3월 31일 20시(화)	158.3	85.8	68.4	69.2	(1.1)	65.1	3.3	17.4	25.5	
4월 1일 20시(수)	158.3	84.2	69.0	69.0	(0.0)	64.5	4.5	15.1	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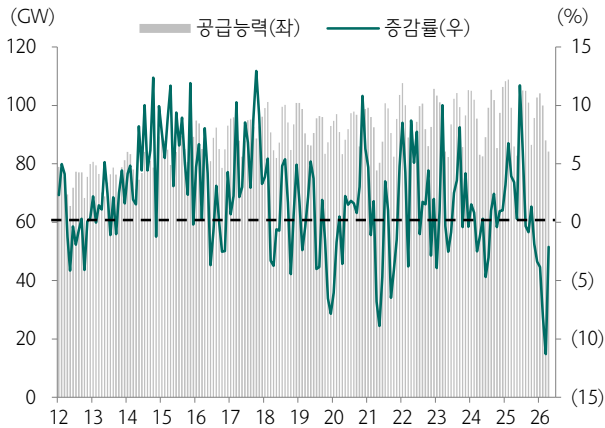
자료: 전력거래소, 하나증권

주간 기저발전 예방정비 계획 (4월 1주차)		
석탄	당진	#4 : 3.22 - 3.29 / #5 : 3.30 - 8.5 / #8 : 3.28 - 3.30 / #9 : 2.13 - 5.20 / #10 : 3.16 - 3.30
	보령	#4 : 2.24 - 5.6 / #5 : 3.28 - 3.30 / #6 : 3.28 - 3.30 / #8 : 3.23 - 5.27
	신보령	#2 : 2.19 - 6.15
	삼천포	#3 : 3.28 - 3.30 / #4 : 2.23 - 3.31 / #5 : 2.18 - 4.15
	여수	#1 : 2.23 - 4.7
	영흥	#1 : 1.1 - 10.1 / #2 : 1.1 - 10.1 / #4 : 4.1 - 7.4 / #5 : 2.5 - 3.27
	태안	#2 : 3.3 - 3.27 / #2 : 3.28 - 3.30 / #4 : 3.14 - 4.1 / #5 : 3.28 - 4.1 / #6 : 4.4 - 4.19 / #7 : 3.3 - 5.14 / #9 : 3.9 - 6.10
	신서천	
	하동	#1 : 3.28 - 3.30 / #1 : 3.21 - 3.28 / #2 : 3.28 - 3.30 / #4 : 3.16 - 4.11 / #5 : 3.28 - 3.30 / #6 : 1.26 - 4.23 / #7 : 3.28 - 3.30 / #7 : 3.31 - 3.31 / #7 : 4.2 - 6.19
	삼척그린	#1 : 4.1 - 7.4
	북평	
	고성	#2 : 2.23 - 4.25
	강릉안인	#1 : 3.28 - 6.9 / #2 : 2.15 - 3.12
	삼척화력	#1 : 2.3 - 5.4
국내탄	동해	#1 : 2.23 - 6.2 / #2 : 2.23 - 5.22
원자력	고리	#2 : '23.4.8 - '26.4.9 / #3 : '24.9.28 - '26.7.12 / #4 : '25.8.6 - '26.7.12
	신고리	
	한빛	#1 : '25.12.9 - '27.3.31 / #6 : 2.7 - 4.10
	한울	#3 : 2.13 - 5.18 / #5 : 2.26 - 6.26
	신한울	
	월성	#2 : '25.9.1 - '26.4.20 / #3 : '25.9.26 - '26.4.21 / #4 : '25.7.18 - '26.4.30
	신월성	#1 : 1.5 - 3.23
새울		

자료: 전력거래소,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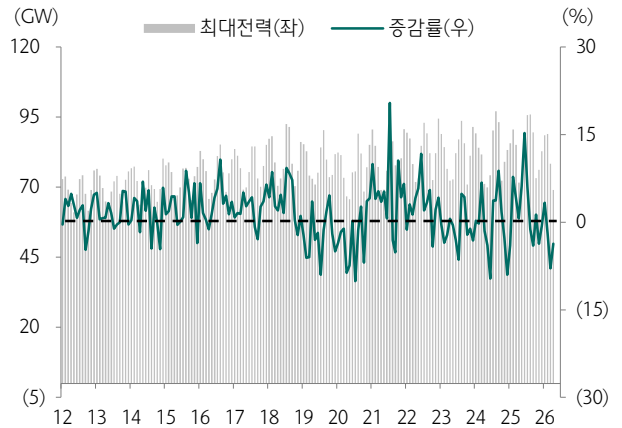
주요 차트

도표 1. 월별 공급능력 (4월 1일 최대수요 기준 YoY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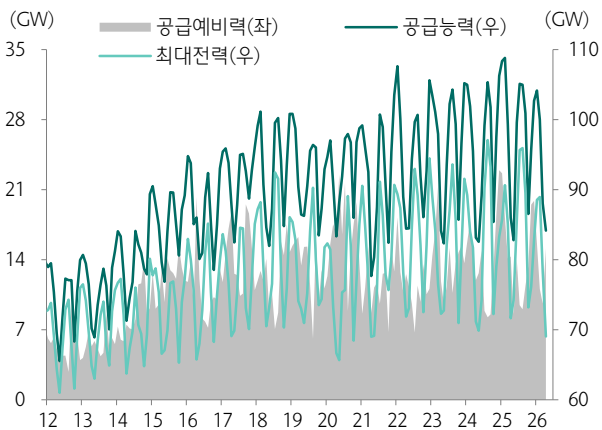
자료: EPSIS, 하나증권

도표 2. 월별 최대전력 (4월 1일 최대수요 기준 YoY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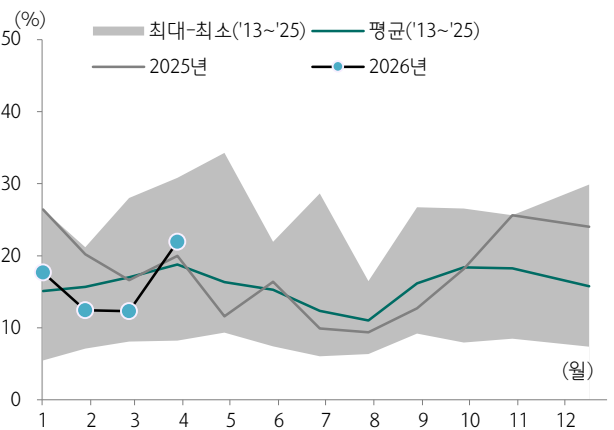
자료: EPSIS, 하나증권

도표 3. 월별 공급예비력 (4월 1일 최대수요 기준 YoY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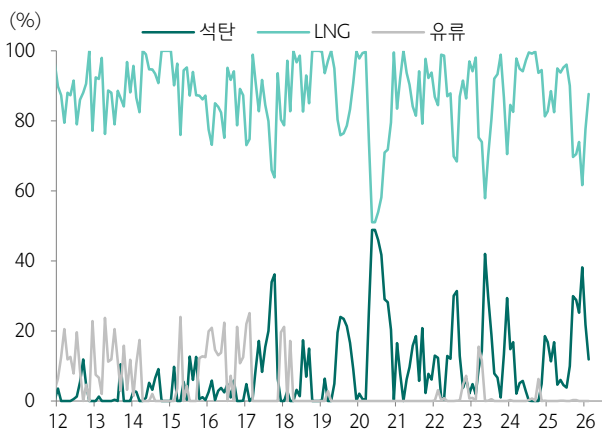
주: 최대전력일 기준. 자료: EPSIS, 하나증권

도표 4. 월별 공급예비율 (4월 1일 최대수요 기준 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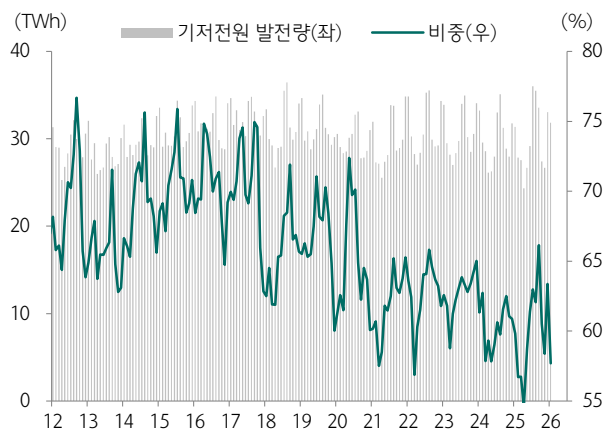
주: 최대전력일 기준. 자료: EPSIS, 하나증권

도표 5. 연료원별 SMP 결정비중 (2월 기저전원비중 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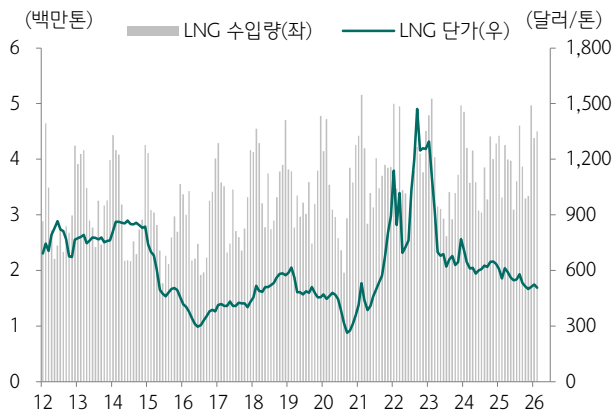
자료: EPSIS, 하나증권

도표 6. 기저발전량 비중 (1월 5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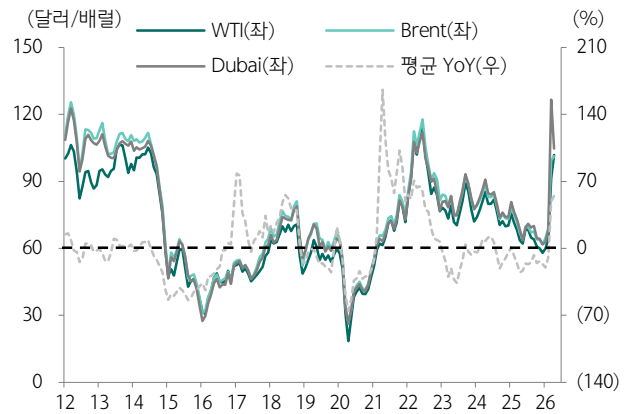
자료: 한국전력, 하나증권

도표 7. 국내 LNG 수입량/단가 (2월 YoY +35.8%/-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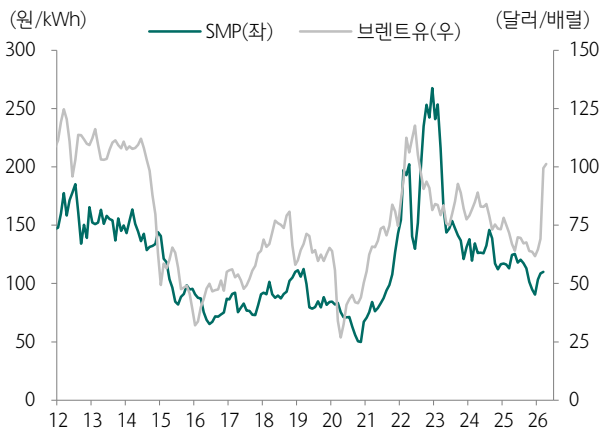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하나증권

도표 8. 국제유가 (3월 3대 유종 평균 YoY +5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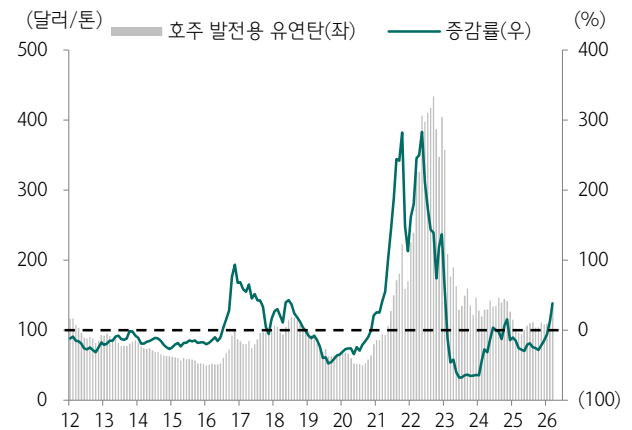
자료: Workspace, 하나증권

도표 9. SMP와 국제유가 추이 (2월 SMP YoY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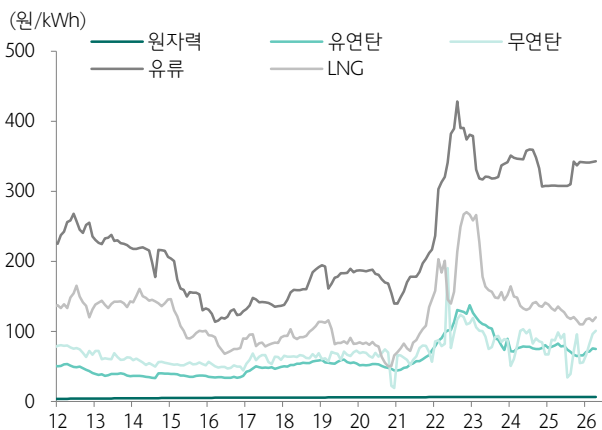
자료: EPIS, Workspace, 하나증권

도표 10. 호주 발전용 유연탄 (3월 YoY +3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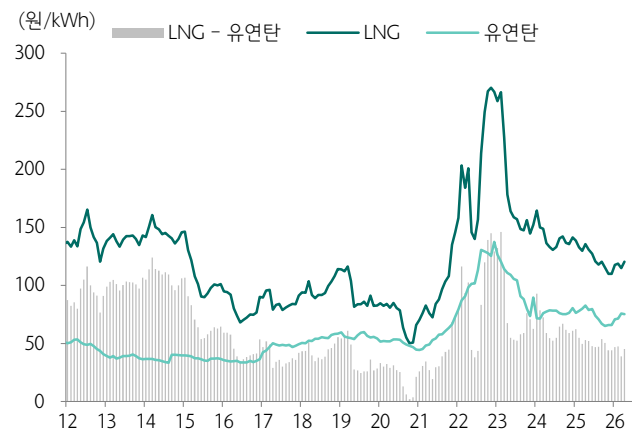
자료: EPIS, 하나증권

도표 11. 연료비단가 (4월 LNG YoY -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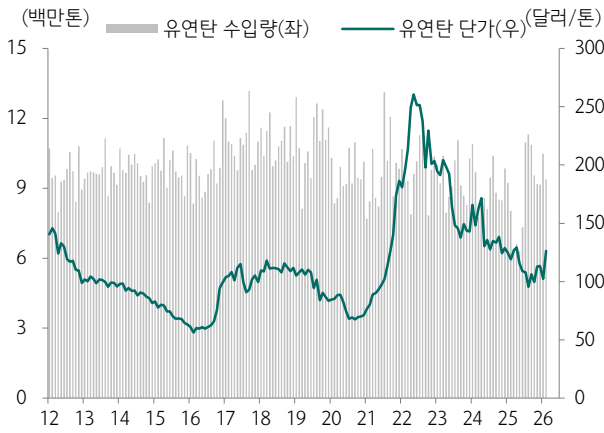
자료: EPIS, 하나증권

도표 12. LNG/유연탄 연료비단가 격차 추이 (4월 45.25원/kW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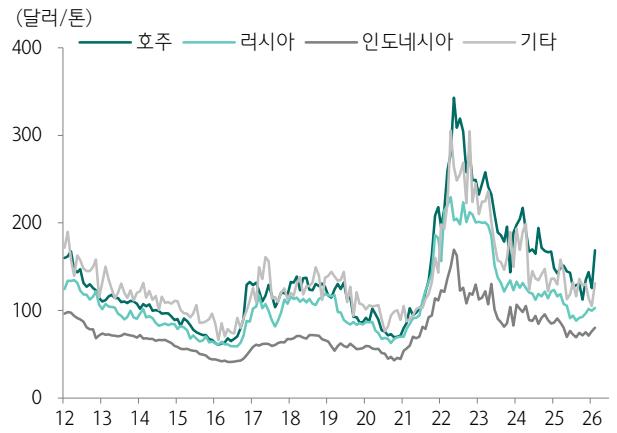
자료: 전력거래소, 하나증권

도표 13. 국내 유연탄 수입량/단가 (2월 YoY +17.0%/+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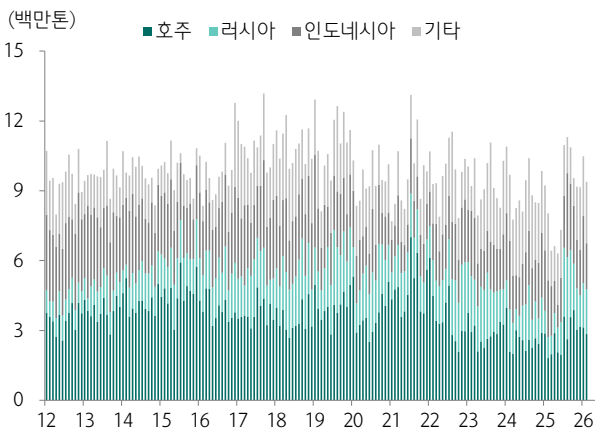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하나증권

도표 14. 지역별 유연탄 수입단가 (2월 호주 YoY +1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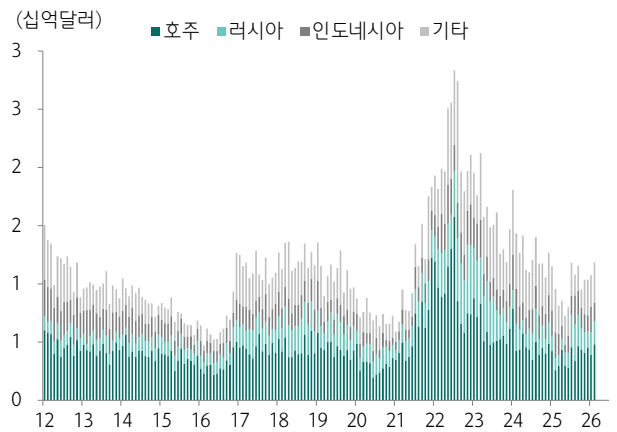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하나증권

도표 15. 지역별 유연탄 수입물량 (2월 호주 YoY +5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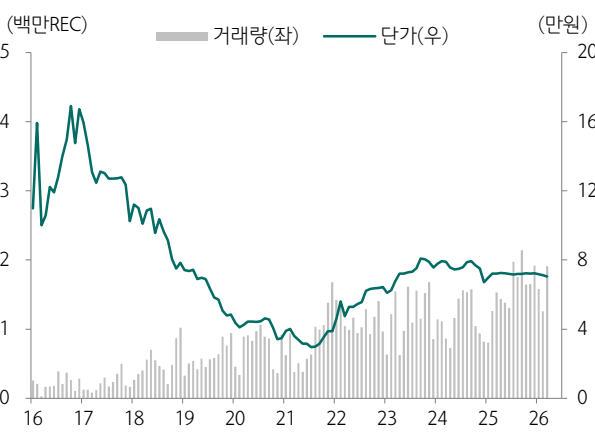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하나증권

도표 16. 지역별 유연탄 수입금액 (2월 호주 YoY +8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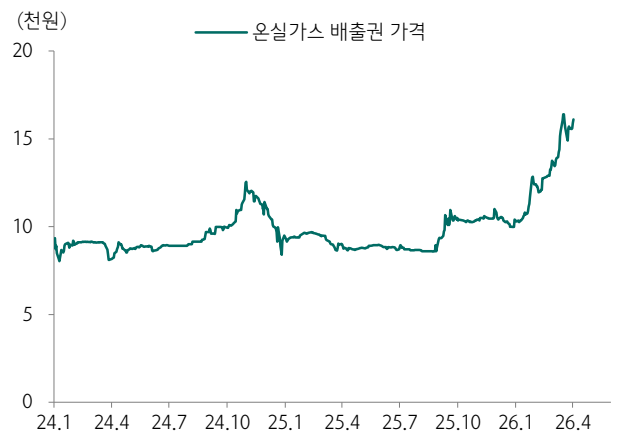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하나증권

도표 17. 현물시장 REC 거래량/단가 (3월 YoY +24.8%/-2.4%)



자료: 산업부,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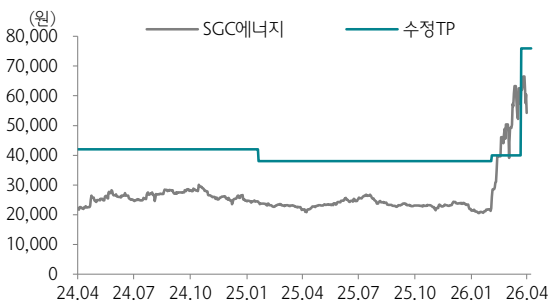
도표 18. 온실가스배출권 가격 추이 (KAU25)



자료: KOMIS, 하나증권

투자 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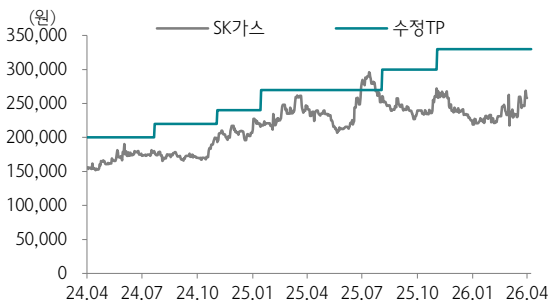
SGC에너지



날짜	투자 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3.24	BUY	76,000		
26.2.4	BUY	40,000	16.97%	58.25%
25.1.21	BUY	38,000	-38.41%	-29.61%
24.2.1	BUY	42,000	-39.03%	-28.33%

투자 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를

SK가스



날짜	투자 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5.11.4	BUY	330,000		
25.8.5	BUY	300,000	-19.03%	-9.33%
25.1.16	BUY	270,000	-10.81%	9.63%
24.11.4	BUY	240,000	-13.07%	-5.21%
24.7.23	BUY	220,000	-20.44%	-9.23%
23.10.30	BUY	200,000	-20.57%	-4.75%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2026년 4월 2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유재선)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 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유재선)는 2026년 4월 2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 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등급 관련사항 및 투자 의견 비율공시

- 투자 의견의 유효기간은 추천일 이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적용

• 기업의 분류

BUY(매수)_ 목표주가가 현재가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 목표주가가 현재가 대비 -15%~15% 등락
Reduce(비중축소)_ 목표주가가 현재가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 산업의 분류

Overweight(비중확대)_ 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 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Underweight(비중축소)_ 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투자등급	BUY(매수)	Neutral(중립)	Reduce(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율	96.76%	3.24%	0.00%	100%

* 기준일: 2026년 03월 30일